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안함 즉 안홍이 불연국토설을 창안한 까닭은?

여왕 결점 보완·신라에 희망 심어



신인이 제시했다는 황룡사 9층탑 건립의 실제 제안자가 <삼국유사> 등의 조목에는 '안홍'으로 추정되고 있다.

1. 안함과 안홍의 동인인 여부
 황룡사에 추석하였던 안함은 안홍과 같은 인물로 추정되고 있다. 그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과 인식들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안함과 안홍의 동인인 여부와 귀국 이후의 활동을 사가들이 소홀히 한 때문으로 짐작된다. 안함과 안홍이 동일 인물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신라심상'(新羅心相)으로 꼽힐 정도로 그의 역사적 지평과 사상적 위상은 적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현존 사료에 등장하는 안함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진흥왕 조목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면 『해동고승전』에는 '안홍전'(安弘傳)이 실려 있다. 『삼국사기』 「안홍법사(安弘法師)로 적고 있고, 『해동고승전』은 '석안함(釋安含)으로 적고 있다. 『삼국사기』의 '수(隋)나라'에서 돌아온 해(576)를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유학한 나라는 수(隋)나라 이전의 진(陳)나라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진평왕 11년(589) 조의 '원광법사(圓光法師) 입진구법(入陳求法)'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각훈이 '안홍'과 '안함'을 섞어 쓴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안홍비문'이 10중 4, 5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해동고승전』 「안홍전」은 이렇게 적고 있다. "승려 안함은 속성이 김서요, 시부(詩賦) 이찬의 손자이다. 나면서부터 도리를 깨달았고 성품이 맑고 허심탄화하였다. 의지가 굳고 깊으며 아름다운 도량

농가타는 46세, 마두라국 불타승가는 46세였다. (이들은) 52국을 거쳐서 비로소 중국[漢土]에 이르렀고 드디어 해동(신라)에 왔다. 황룡사에 머무르며 『전단향화성광묘녀경』(旣檀香花星光妙女經)을 신라 승려 담화가 필수(筆授)가 되어 역출(譯出)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승려가 왕에게 표(表)를 올려 중국에 돌아가기를 청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여 돌려보냈다." 안홍은 아마 이 안함화상일 것이다."
 가마다 시게오(鎌田武雄)는 자신의 『신라불교사서설』에서 중국에는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이 없으므로 이 경전은 불교 의식(儀式)을 적은 경이 서역으로부터 적수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진흥왕 37년(576) 안홍이 진(陳)에 들어가 법을 구하고 호승 비마라 등 두 사람과 함께 돌아와서 『능가경』, 『승만경』 및 부처님 사리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각훈은 이들 기록의 출원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진흥왕 말년에서 진평왕의 건국 연간까지는 거의 50년의 간격이 있는데, 어찌 삼장이 온 전후가 이와 같은가? 어쩌면 안함과 안홍은 실제로 두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행한 삼장이 다르지 않고, 그 이름도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합하여 전기를 만든 것이다. 또 서역의 삼장이 가고 머무르고 마친 바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설은 곧 선덕왕대 신라의 불국토설로 이식된다. 수나라의 참서는 건국한 뒤의 결과론적 침공이었지만, 안함의 그것은 선덕여왕의 결점을 보완해야 하고 암울한 신라의 현실에 희망을 고취하는 예언서였다. 이 점에서 그 지향이 매우 달랐다. 안홍은 선덕왕이 당의 원병을 청했을 때(643) 태종이 "그대 나라는 부

역학을 주장한다. 안홍이 선덕왕의 도리천 승천(昇天)을 말한 것은 불교 우주관의 시설을 통해 신라가 사천왕의 호지(護持)를 받게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때문에 도리천으로 설정된 남산 아래에 사천왕사를 건립하고자 했던 것은 안홍의 예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신라의 주변국들에 대한 언급과 배정도 참문의 성격을 지니고 『동도성립기』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홍의 구법 내용이나 신라 귀국 뒤 지은 자신의 참서가 수나라 문체의 조직으로 만들어진 『역대삼보기』 속의 "……푸성귀 무성하니 도음을 세워, 정정(定鼎)의 터전 영원히 다지고 무성한 업(業)이 여기에 있다. …… 사해(四海)가 이로써 고요해지고, 아홉 오랑캐가 비로소 잠잠하다"의 구절과 긴밀하게 호응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구복(九服) 즉 아홉 오랑캐가 복종해 온다는 표현은 중국 주변국을 총칭하는 것이며, 안홍의 '구환(九翰) 역시 '구복'에 상응하는 신라 주변국에 대한 총칭이며 구체적인 국명의 배대는 후대의 가필(加筆) 혹은 주기(註記)로 짐작된다. 일연은 『삼국유사』 「탐상」 「황룡사구층탑」 조목에서 "해동의 명현 안홍이 지은 『동도성립기』에 전하기를, 신라 제27대에 여자가 왕이 되니, 비록 덕이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구환(九翰)이 침범하게 되는데, 대궐 남쪽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운다면 곧 이웃 나라의 침해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는 진평왕 때부터 성골 남자가 다하면서 [聖骨男盡] 골품제(骨品制)와 진종설(眞種說)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신라 왕족의 이름이 석가모니 가계의 이름과 동일시하고 석가 제세시의 불국토에 비견한 것은 이지적(理智的)인 정법치국(正法治國)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신라의 불국토 사상은 인도와 인연없는 신라와 인도와 인연 있는 불국임을 전불교의로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자국내의 불교적 역할이 어느 정도 쏠려야 가능하고 그러한 사상이 절

실히 요구되는 시대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황룡사 장육상은 인도의 아유훈왕이 주조에 실패하고 남부부제와 중국 등 수천국을 지났으나 조상의 인연이 닿지 않다가 신라의 진흥왕대에 비로소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또 '황룡사의 가섭불 연좌석'은 이곳이 전불시(前佛時) '가람지화'(伽藍之墟)이며 이 연좌석은 사람의 수명 이만(二萬) 세시(歲時)의 가섭불 시절의 것으로서 진흥왕대 황룡사 창사 때부터 불전 뒤에 있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불국토설화의 장안자는 자장(慈藏)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황룡사 구층탑 조목에 따르면 자장이 중국 태화지(太和池) 곁을 지나다가 한 신인(神人)을 만났을 때 신라는 의적에 둘러싸여 자주 침입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신인은 신라는 여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맞고 있으므로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도록 일러주었다. 같은 조목의 주(註)에 나오는 「사중기(寺中記)와 황룡사 참주본기(剎柱本記)에는 이 말을 종남산(終南山)의 원향(圓香)선사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자장이 탐을 세우자고 한 제안이 누구에 의해서인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대흥선사사리탑(大興善寺舍利塔)을 보고 온 안홍(安弘)의 주장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안홍기』를 두 번이나 인용하였고, '동경흥륜사금당심상' 조목에는 동쪽 벽 네 번째에 안함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안함과 안홍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천왕 칙명으로 대흥성사에 머물러 심승 비법과 현의 5년만에 깨달아

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진평왕 22년(600)에 고승 혜승(惠僧)과 도반이 되기를 약속하고 뗏목을 타고 (중국에 가려고) 이포진(泥浦津)으로 가는 도중 섬도(涉島) 밭을 지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뗏목을 띄워) 되돌아 왔다. 이듬해(601)에 임금의 교지를 내려 법기(法器)를 이룰 만한 자를 뽑아 중국에 들어가[入朝] 유학하도록 하였는데 마침내 법사가 가게 되었다. 이에 사신과 동행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중국의 조정으로 갔다. 천왕(天王, 天子)이 불러 친히 보고 크게 기뻐하며 칙명으로 대흥성사(大興聖寺)에 머물게 하였다. 법사는 단시일 내에 심승(十乘)의 비법(秘法)과 현의(玄義)와 진문(眞文)을 5년 만에 두루 보고 깊은 뜻을 깨달았다. (중략) 그 뒤 27년(605)에 우전(于闐)의 사문 비마라진제(毘摩羅真諦)와 사문 농가타(農加陀) 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서역의 호승(胡僧)이 직접 계림(鷄林, 新羅)을 찾은 것은 대개 이때부터였다."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부석존자전)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의상은 진평왕 건복(建福) 42년(625)에 태어났다. 이 해에 동방의 성인 안홍(安弘) 법사가 서역의 세 삼장과 중국의 두 승려와 함께 당나라에서 돌아왔다.'" 그 주(註)에는 이렇게 써여 있다. "북천축 오장국의 비라라진제는 당시 나이 44세,

2. 참서 『동도성립기』의 찬술

각훈은 『해동고승전』에서 "안함화상은 본국으로 돌아온 뒤 『참서』(讖書) 한 권을 지었다. (이 참서) 글자가 별이졌거나 불어버려서 글을 아는 사람도 이해하는 이가 드물고, 대지(大旨)가 은밀하여 이치를 찾으려 해도 궁구하기 어렵다. 즉 '부양이가 흠어진다' 하고, 또 제일여주(第一女主)를 도리천에 장사지냈고, 천리전군(千里戰軍)이 패했으며, 사천왕사(四天王寺)가 세워졌고, 왕자가 돌아온 해이며, 대군(大君)이 성하여 밝아진 세상 등이 어렵듯한 예언이었던 눈으로 본 듯 조그맣고 틀림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서 "선덕왕 9년(640) 9월 23일, 만선도랑(萬善道場)에서 입적하니 향년 62세였다. 그 달에 나라의 사신이 중국에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법사를 만나니 그는 푸른 물결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가더라"고 하였다. 또 "이것은 참으로 이른바 공중으로 날아오는 것이 마치 계단 오르듯 하고, 물 위에 앉는 것이 마치 땅 위를 다니듯 했음을 보이는 것이다"고 적었다.

이 기록에 의거하면 안함의 번역서인 경전과 달리 유일한 저술로 알려진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는 아마도 신라의 서울을 수나라의 서울인 수도(隋都)에 비견한 것으로 이해된다. 비장방(費長房)이 수나라 문제(文帝)에게 바친 『역대삼보기』(歷代三寶記)에 의하면 "황제는 아유훈 못지 않은 전륜성왕"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역대삼보기』에서 기술된 제왕의 육체 육천 호지설(護持說)에는 "우리 황제는 사천왕이 호지하는 삼보의 명을 받아 (중략) 33천(도리천)이 각기 자기의 덕분(德分)을 우리 황제에게 주었다. 그래서 천왕이 호지했기 때문에 천자(天子)라고 칭한다"고 하였다.

유일한 저술 참서 『동도성립기』 남겨 신라에 희망고취 예언서 역할

인이 왕이 되어 이웃나라의 멸시를 받는다"거나, 제위 16년에 모반을 일으킨 비담 등이 "여왕은 정치를 잘할 수 없다"고 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짐작된다. 수나라에 유학했던 안홍은 중국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신라의 현실을 타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대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짐작된다. 그것이 곧 『동도성립기』 즉 『안홍기』라고 할 수 있다.

안함이 입적한 뒤 경덕왕 대에 세워진 한림대(翰林臺)의 설모(薛某)가 왕명을 받들어 비명을 지었다. 그 비명에 말하기를 "왕후(선덕여왕)가 도리천에 묻혔으며 사천왕사가 건립되었다. 괴상한 새가 밤에 우니 새벽녘에 군사들이 모두 죽었다. 왕자 김인문(金仁問)은 바다를 건너 중국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뵈고 5년이 지난 30세에 돌아오니 뜨고 잠기는 세월의 흐름(輪轉)을 누가 어찌 면하겠는가. 안함법사는 나이 62세에 만선도랑(萬善道場)에서 목숨을 마쳤다. 사신이 바닷길로 돌아오다가 법사를 만나니 물 위에 단정히 앉아 서쪽을 향해 가더라"고 하였다.

3. 불연국토설의 창안

무릇 참서란 현실의 암울을 벗어나 희망을 불러올 예언서이다. 때문에 참서는 미래 비전의 제시나 꿈의 설계보다는 시운(時運)의 도래나 자국 영토의 성

황룡사 구층 석탑 제안자 안홍 대가야 공격 받고 자장 통해 실현

않고 있다. 일연은 각훈이 적은 『해동고승전』의 「안홍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해동명현'(海東名賢)이라고 일컬으면서도 안함과 안홍의 관계에 대해 거론하지 않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안홍이 진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승(師僧)이나 승관(僧官)의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예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지만 안홍의 입적 이후 백제의 대야성 공격을 통해 위기에 처한 신라 정국이 그의 예언을 띄어 보게 되었고 자장이 이를 수용하여 황룡사 구층 건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각훈, 『해동고승전』(울유문고, 1975).
 김철준,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 『역사학보』, 제2호, 1952.
 신중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민족사, 1992).
 고영성,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 2012).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질할 때마다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뱉었던 길, 발자국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열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p>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p>	<p>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p>	<p>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p>	<p>4 수직으로 나열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p>
<p>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p>	<p>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p>	<p>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매듭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p>	<p>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p>
<p>9 두 줄로 2회 뒤로 가깝게 매듭을 만듭니다.</p>	<p>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p>	<p>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리미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깝게 눌러줍니다.</p>	<p>12 108염주 완성 심용산인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p>

다담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